

기업 실적 호조 및 반도체 반등에 3대지수 상승

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hyseong@ls-sec.co.kr

중동발 국제금리 상승에도 위험자산 선호, 증시 강세

- 미 증시는 DOW +0.74%, S&P500 +0.89%, NASDAQ +1.29% 상승. 기술주, 에너지, 헬스케어 강세, 필수소비재,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약세
- 중동 리스크가 유가, 인플레이 우려 자극하며 국제금리 상승 10Y 4.628%(+3.0bp), 2Y 4.264%(+4.9bp). 달러인덱스 10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국제금 +1.5%
- 그럼에도 기업 실적 호조, 반도체 투심 회복에 주식,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 선호 뚜렷. Factset에 의하면 실적을 발표한 S&P500 기업 88%가 시장예상치 상회한 호실적 발표

반도체 반등, 월가의 시선은 엇갈림 양상

-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+5.2%. TSMC(+5.5%) 2027년 반도체 위탁 가격 최대 10% 인상 추진 보도에 따라 반도체 업종 전반 투자심리 개선
- UBS는 AI 및 반도체주 급락 마무리 국면으로 저가매수 타이밍이라 언급. 골드만삭스 역시 실적이 하반기 증시 레벨을 지지할 것으로 낙관. 다만, 매크로위험 확대에 대비해 러셀 2000, 경기소비재, 은행주, 중국주식 등을 헷지수단으로 꼽기도 했음
- 반면, JP모건 다이먼 CEO는 시장이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경고. 현재 가격에서 주식이나 장기 미 국채를 매입하지 않을 것이라 발언

중동발 유가상승 지속과 새 관세 발표 예고

- 국제유가 상승 WTI \$84.9(+2.0%), Brent \$91.0(+2.0%). 양국 공습 지속 및 호르무즈해협 유조선 피격·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에 원유운반선 2척 회항 보도에 원유 수송 불안 확대
-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과 전쟁으로 현재까지 375억달러가 투입되었다 밝힘
- 한편,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곧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 발표를 예고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NVDA	엔비디아	+2.0%	차세대 AI 플랫폼 '베라 루빈' 본격 공급 시작 소식에 주가 상승. 이안 벅 엔비디아 부사장에 따르면, 신형 베라 루빈 기술 기반의 컴퓨팅 시스템이 주요 AI 기업에 성공적으로 인도되었으며 곧 실사용 단계에 돌입할 예정. 오픈AI는 3분기 중 베라 루빈을 대규모로 도입할 계획이며, 코어워브·구글클라우드·MS 애저·메타·델 등도 이미 채택 중
GOOG	알파벳	-1.5%	제미니AI 신모델 3종 발표.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탐지 및 수정에 특화된 '제미니AI 3.5 플래시 사이버', 토큰 사용량과 비용을 절감한 '제미니AI 3.6 플래시', 빠르고 방대한 워크로드 처리에 최적화된 '제미니AI 3.5 플래시-라이트' 공개.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라인업 확대 이루어짐
SPCX	스페이스X	+3.1%	맥쿼리는 투자이건 '아웃퍼폼'과 12개월 목표주가 \$250을 재확인. 핵심 투자 논거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으며 최적 매수 시점이라 분석. 한편 최근 일론 머스크 CEO는 공매도 세력 비판 및 경고. 8월 4일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거래 가능 주식 물량 확대 예정
GM	제너럴모터스	+4.9%	실적발표.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2분기 실적 발표 및 연간 가이드선 상향 조정에 주가 상승. 일관된 차량 판매가격, 보증비용 감소, 전기차 부문의 손실 축소가 가이드선 상향 배경. CFO는 회사의 뚜렷한 모멘텀을 강조하며, 현재 주가가 저평가 상태라 강조
DHR	다나허	-11.0%	실적발표. 시장 예상치 상회한 2분기 실적 및 연간 EPS 가이드선 상향에도 불구하고,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핵심 매출 가이드선에 주가 하락
NOC	노스롭그루만	-2.2%	실적발표. 시장 예상치 상회한 2분기 실적 및 연간 매출·조정 EPS 가이드선 상향에도 주가 하락마감. 분기 중 \$20B 신규 수주로 백로그가 사상 최대인 \$105B로 확대됐으나, 전년 사업매각 이익 기저효과에 따른 영업이익 23% 감소가 부담으로 작용